

## 이영수 대아인쇄 대표 “삼국지중 제갈공명 편”

#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 얻을 수 있는 샘

책으로 대표되는 인쇄물을 만드는 것은 인쇄인들의 몫이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책과 가까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막상 독서 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살찌우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양분으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책을 단순히 만드는 것을 뛰어 넘어 마음의 양식과 삶의 나침반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인쇄업계의 CEO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타인에게 추천하고픈 책과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본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 추천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내용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삼국지를 추천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힘이 들 때면 저는 삼국지를 읽습니다. 그중에서도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이자 전략가인 제갈공명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술, 전략을 보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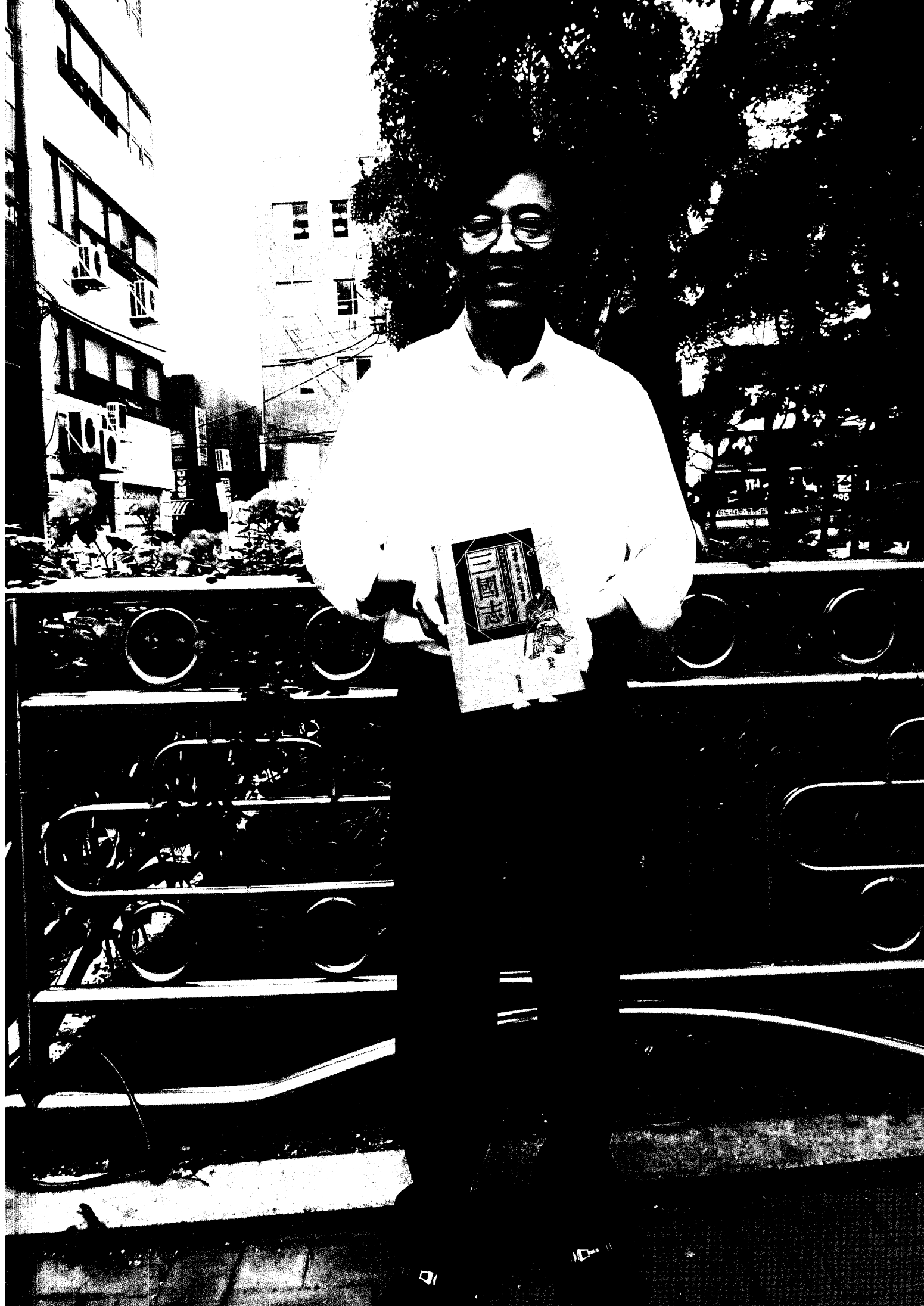
삼국지가 워낙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쉽게 손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어서 만화삼국지를 구입했는데, 만화라고 해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어른인 제가 봐도 재미있어서 소설을 읽기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만화삼국지를 추천합니다.

삼국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유비가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를 맺은 후 황건적을 토벌하고, 혼란한 틈을 타 일어났던 세력들을 물리칩니다. 그 가운데 동탁과 여포를 없애버립니다. 유비는 원소와 함께 조조와 전쟁을 치르는데 원소의 군대는 조조에 비해 10배나 많은 병력임에도 패배하는데 이것이 ‘관도대전’입니다. 이후 조조는 원소를 없애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유비는 조조한테 쫓기다가 제갈공명을 얻습니다. 조조는 손권을 쳤지만 유비와 손권의 동맹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태워버리니 이것이 ‘적벽대전’입니다. 이후 유비는 영역을 확장했지만 오나라에게 빼앗기고 관우, 장비가 죽습니다. 무리하게 오나라 원정을 간 유비도 패배하자 화병으로 죽습니다. 제갈공명은 남만을 정벌하고 수차례에 걸쳐 출사표를 내고 위를 쳤지만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제갈공명이 죽자 간신들에 의해 나라 망하고 유비의 아들 유선은 위나라에 항복하지만, 위나라도 신하였던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에 의해 멸망됩니다. 사마염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세운 뒤 오나라도 쳐서 삼국은 통일되게 됩니다.

### 삼국지중 제갈공명 편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은 빼놓을 수 없는 감초입니다. 제갈공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천하가 어지러울 때 한나라의 부활을 꿈꾸던 유비 현덕을 도와 한평생을 천하통일을 이루기 위해 싸웠으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의 한계임을 알면서도 주인에게 충정을 다 바친 명제상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다재다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천재들의 공통된 심리적 결함을 그도 버리지 못하고 너무 국사와 천하통일만을 노심초사 강행군을 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책 내용이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전체적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와 신비에 가까운 능력묘사가 책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제갈공명이 나오는 부분은 재미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쯤 펼쳐보게 됩니다. 제갈공명의 지혜와 선견지명, 판단력과 추진력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EO들은 어떠한 경제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경영에서 커다란 갈림길이 있을 경우 중간관리자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의견을 내세우거나 실제로 해 볼 수 있지만, CEO는 어떠한 길이 좋을지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경우 저는 삼국지의 제갈공명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삼국지거리중 적벽대전 벽화

### 제갈공명의 업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또는 전투)이 있다면?

제갈공명이 이끈 전투가 많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적벽대전'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을 정도로 제갈공명의 가장 큰 업적중 하나입니다. 적벽대전에서는 제갈공명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화살이 부족했을 때 적군의 화살을 모은 사건과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화염을 통해 조조를 물리친 것 등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즉 제갈공명은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시대, 계절, 날씨, 시간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좋은 전술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통해서 지나간 옛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회사경영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을 갖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용해 경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회사경영도 회사내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외부에서 회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발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 제갈공명의 명언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갈공명은 전략보다는 전술로 승부하였습니다. 예측보다는 현실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투에서 장수에게 세세하게 어떻게 싸우고, 어디를 공격하며,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어떤 전술을 써야 성공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갈공명의 명언중 '지피지기백전불태' 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피지기백전백승' 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본래는 '지피지기백전불태' 가 맞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갈공명이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 것은 적은 인원을 갖고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는 장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해 이를 전투에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제갈공명의 '지피지기백전불태' 는 경영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쇄사 대표들도 제갈공명처럼 넓게 보고 판단을 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먼 시야를 봐야 합니다. 자신의 분야만 알고 있다면 우물 안 개구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인쇄사 대표이지만 인쇄관련 세미나가 있다면 당연히 참석하지만 인쇄 외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세미나와 모임, 전시회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코엑스나 킨텍스 전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이들 전시장

에서는 매주 끊이지 않고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인쇄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전시장을 찾으면서 인쇄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바로 바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 필요할 때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다양한 발명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기억들이 모여 다양한 발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부하를 사랑하고, 경쟁자에게도 존경을 받고, 지식이 풍부하여 모든 부하가 따른다면 천하 민민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제갈공명은 말했습니다. 제갈공명의 리더십에서 사장님께서 따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역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직원들의 두뇌보다는 가슴(heart)을 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CEO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는 직원들의 두뇌를 삽니다. 그래서 대표들은 “나는 직원(두뇌)을 샀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어떻게든 굴러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EO가 손을 놓고 있으면 회사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가슴(heart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CEO가 직원의 가슴을 얻었다면,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가슴을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 회사소개

(주)대아인쇄는 UV 특수인쇄와 스티커 제작전문 업체로,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적극 리드하고 전문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내외의 우수한 팬시용, 광고용, 학습용 전문업체들이 앞 다투어 주문을 의뢰했고 그 수는 교원그룹, 아이템플, 두란노서원, 규장 등 100여 업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쇄업체로서는 제일 먼저 ISO 품질시스템을 인증받아 품질고급화를 통한 고객만족은 물론 자회사인 (주)코니웰 com과 연계하여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최첨단 설비와 함께 완전 가동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One-Stop 시스템 관리, 인력관리면에서 동업계 최고임을 자부하고 있다. (주)대아인쇄는 30여명의 임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생산 전문화 정착과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